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박 은 주 · 은 영 자*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Orientalism Expressed in the Fashion of 1990's

Eun-Ju, Park · Young-Ja, Eu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rientalism which is expressed in the fashion of the 1990's, this study was examined according to three aspects such as form, textiles and pattern and the aspects was considered with regard to Chinese, Indian, Japanese, Korean, Southeast Asian, and North African style.

1. In form, Orientalism which is influenced by latest other fashion trend ; Naturalism and Minimalism, is expressed as a comfortable casual style which simplifies the way of wearing and mixe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folk costume with western costume.

The way of layered wearing like knotting, wrapping, draping and the symbolic form which is inspired by the unique art of each country are shown.

2. In textiles, Chinese, Japanese and Indian silk as well as Southeast Asian and North African cotton show a splendid oriental impression using vivid color. On the other hand, the linens of Korea like hemp and ramie emphasize natural characteristics and show a simple and unartificial oriental beauty.

But in the use of material and color, it shows a remarkable tendency to break the preconceived idea by coordinating a luxurious silk with a practical denim or harmonizing technical new-materials with traditional materials.

3. In pattern, the decorative elements of Orientalism such as a traditional pattern, skills to dye, embroidery and other decorations are emphasized on the form of western costume.

The sketchy pattern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styles which include the pattern of a

flower, a bamboo and a butterfly are expressed using embroidery or textile printing. The geometrical seriate patterns of Southeast Asian and North African styles use traditional dyeing methods like Batik.

Also the Indian technique of decoration like Mirror Work satisfies handcrafted royalty and feminine romantic taste in modern minimal fashion.

The Orientalism expressed in the fashion of 1990's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earing clothing which break the preconceived idea by simplifying the form, harmonizing differences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cultures and mixing the elements of traditional costumes among countries. Most of all, Ethno using geometrical seriate pattern and technical new metal material and Romantic Ethnic using flower embroidery, precious stones and beads are appearing as a distinctive feature.

I. 서론

현대 사회의 발달된 통신과 대중매체는 전세계의 소식과 문화를 시차 없이 전달하게 됨으로써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단일 공동체로 만들게 되고 각 민족 고유의 문화적 차이를 사라져가게 하고 있다.

복식에 있어서도 서구의 복식이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복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전통복식은 점차 일반대중의 평상복으로는 채용되지 못하고 외례복으로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¹⁾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량생산에 의한 동질화·획일화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과학문명의 급진적인 발달이 가져 온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정신주의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한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 지역의 때묻지 않은 원시성에 향수를 느끼게 되면서 이들 지

역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에스닉 패션의 한 흐름으로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패션은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 민속의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디자인으로 일찍부터 기독교권 문화에 속한 서구인들에게 호기심의 충족과 동양적 취미의 수준에서 수용되어져 왔으나 1960년대 이후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문화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사상과 철학의 원류로써 동양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 온 이래²⁾ 1990년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1993년부터 시작된 한국 디자이너들의 파리 무대 진출 등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선행연구로 윤명자³⁾, 이영재⁴⁾, 김윤희⁵⁾, 이상례⁶⁾, 임영자⁷⁾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동양의 범위를 주로 중국, 일본,

1) 전영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민속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2.

2) 채금석, 『현대 복식 미학』 (서울: 경춘사, 1995), p.241.

3) 윤명자, "현대패션의 오리엔탈리즘: '80년대 파리 프레타 포르테 콜렉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4)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 고대 실크로드 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5) 김윤희, "20세기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II)," 『생활과학연구』 (서울대) 17 (1992).

6) 이상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한국, 몽골,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7) 임영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1996).

몽골, 한국과 같은 극동 아시아와 북방 아시아 문화권으로 한정하였고, 현대 패션이라 정의한 시기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이 중심을 이루므로 지금 시점의 패션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의 특성과는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오리엔탈리즘 패션이 1990년대 패션에 접근된 방식과 표현 방법을 규명해 봄으로써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복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적 요소의 서양복식에의 도입을 통한 우리 패션 산업의 세계 패션 무대 진출에 도움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로 이루어지며, 먼저 오리엔탈리즘 패션이 서구 복식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 1990년~1998년까지 해외 모드지와 국내 패션잡지, 패션 정보지 등에서 추출한 사진을 바탕으로 형태, 직물, 문양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풍, 인도풍, 일본풍, 한국풍, 동남아시아풍, 북부아프리카풍의 6개 조류로 나누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오리엔탈리즘 복식의 등장 배경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일반적으로 동방적 취미, 동방적 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를 말하며, 특히 근세 유럽에 있어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문학·예술상에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제재(題材)로 삼은 것을 의미한다.⁸⁾

오리엔탈리즘의 용어에 내포된 오리엔트(Orient)는 라틴어의 오리엔스(Oriens)가 그 어원으로 '일출', '해가 뜨는 방향', '동방'의 의미를 지닌다. 지리적으로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의 동쪽

을 가리켜 불리었으나 동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오리엔트라 말하는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일반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한 동방세계 전체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 되었으며 오리엔탈리즘 복식이란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민속복식에서 느껴지는 고유의 독특한 복식요소(여러 기법, 이미지, 색조, 문양)들이 서양복에 도입되어 민속적이며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는 복식을 말한다.⁹⁾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서구 중심적 사고의 편견으로 시대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서양 문화속에 주기적으로 부활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변화는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격변에 의하여 강요될 경우 항상 더 빨라지고 분명해지는데¹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라든가 십자군 전쟁 등은 서양 복식문화에 동양 복식문화의 전파를 촉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흔적은 로마시대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서양복식에 있어 동양풍의 도입배경과 특장적인 요소들을 동·서 문화의 교류로 인한 영향에 증점을 두고 20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20세기 이전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시 동양의 비단을 처음으로 접한 이후로¹¹⁾ 기원전 2세기 경부터 개발되었다고 하는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의 보석·진주·면 그리고 소량인긴 하나 중국의 실크가 전래되었는데, 이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동방과 서방의 복식문화 교류에 전초적인 역할을 하였다.¹²⁾ 특히 벽화에서도 「비단 드레스를 입

8) "오리엔탈리즘," 『동아세계원색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편 (서울: 동아출판사, 1983), p.286.

9) 이영재, 전계서, p.3.

10) 마릴린 혼, 루이스 구델,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1), p.67.

11) 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서울: 열화당, 1997), p.14.

은 로마 여인」〈그림 1〉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로마인들의 비단에 대한 관심이 컸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 비단드레스를 입은 로마 여인, 1세기초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적 요소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적 요소와 동양의 문화를 융합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화려한 색채감각과 중국의 견직물이 혼합·발달된 복식에 있어서도 그 특징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다.

비잔틴 초기에는 동방에서 수입한 두꺼운 실크를 풀어 비잔틴의 따뜻한 기후에 맞게 다시 얇게 짜서 입거나 비싼 실크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울과 함께 교직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6세기 콘스탄티노플에 황실 전용 견직물 제조공장을 세우면서 비잔틴 제국에서의 견직물 제작은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문화가 궁정을 중심으로 변형하였던 9세기부터 12세기 전반에 걸쳐서

는 견직물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특히 인접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브로케이드(brocade)는 비잔틴 시대의 것이 직물사상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권현주¹³⁾는 비잔틴 복식에서 세부장식으로 사용되어진 타블리온(tablion)과 세그멘티(segmenti)를 형태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존귀의 표시와 원, 사각을 위주로 한 장식적인 도구로서 중국의 흥배와 보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비잔틴 제국의 복식은 고대복을 계승한 전통에 동방적 요소를 첨가해 새로운 양식을 만들었고 이후 서유럽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095~1272년에 걸쳐 행해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동·서양의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되어 이질적인 문화와 풍속을 접하게 됨으로써 도시가 상공업의 중심지로 변형하게 되었고 이는 직물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커다란 기회가 되었다.

십자군 전쟁 초기인 로마네스크 시대에도 동양적 요소가 융합된 독특한 복식 스타일을 형성했는데, 대표적 남녀의복인 블리오(bliud)에서 볼 수 있는 목, 손목, 옷단의 선 장식과 끈이나 금·은사를 꼬아서 만든 허리 장식띠¹⁴⁾, 신축성을 주기 위해 울과 실크의 교직물을 두세번 겹쳐 누비기도 하고 금, 은, 색실 등으로 모양을 누비어 보석으로 장식을 하는 조끼 스타일의 코르사주(corsage) 또한 동양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신발에 있어서도 동방과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11세기 말경부터 앞이 뾰족한 구두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잔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¹⁵⁾

13~14세기에는 십자군에 의해 동방의 뛰어난 직조기술이 전해지면서 직물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십자군은 동양에서 많은 아름다운 사

1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89.

13) 권현주, "동방문화에 영향을 받은 비잔틴 복식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성신여대) 4 (1990): p.49.

14) 은영자, "십자군 원정시 서구의 복식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6.

15) 정홍숙, 전제서, p.136.

원을 보았고, 숭배의 상징으로 높이 세운 건축에 대한 열망을 안고 돌아와 전 시대의 건축과는 다른 고딕 성당을 세웠는데¹⁶⁾ 이와 같이 건축에 수반해 여러 가지 공예품이나 장신구에까지 예각적(銳角的)인 감각과 첨두적(尖頭的) 외관을 적용한 고딕 양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예각적 감각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가느다란 동체,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허리, 뾰족한 모자와 뾰족한 구두와 같은 예각적 실루엣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도록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¹⁷⁾

이 때 코타르디(cotehardie)와 푸르푸앵(pourpoint)에 동양의 앞트임 의복이 도입되면서 앞을 여미는 기능과 장식의 기능으로 단추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14세기 말 넓고 풍성한 스커트와 거대하게 넓은 소매의 우플랑드(houppelande)가 많은 양의 직물을 필요로 하는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유행하게 되었던 것도 무역의 발달과 동양으로부터 직조기술 도입으로 발달하게 된 직물산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복을 세로선으로 반갈라서 대조되는 색으로 장식하는 파티 칼라(parti-color)의 유행 또한 동양으로부터 염료의 수입이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의복의 가장자리를 모피나 자수, 대비되는 색의 실크 직물로 장식하는 것이나 수놓는 방법을 통한 자수의 발달, 아폴리케의 도입 등도 동양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¹⁸⁾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무역활동이 비잔틴 제국의 몰락으로 인해 대양무역으로 전개·확장됨으로써 자본주의 사상이 싹트게 되고 이는 개성의 발전과 뚜렷한 자아의식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되게 하여 중

교개혁을 일으키고 복식에 있어서도 인간 자신의 표현을 위해 과장하고 확대하는 의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을 선두로 각국이 식민지를 개척하여 이들 지역으로부터 직물, 염료 등의 진기한 물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곧 복식의 재료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수입한 염료는 유럽의 염료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시대 남자복에서 푸르푸앵은 14세기의 것보다 상체가 꼭 맞는 것이 유행하게 되자 앞을 단단하게 여밀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 때 새로운 수단으로 단추를 애용하게 되었다. 이 앞트임 형식의 카프탄 스타일(Caftan Style)과 단추의 사용은 동양, 특히 터키에서 그 디자인을 본따 온 것이며¹⁹⁾ 여자복에 있어서도 코트(coat)에 앞이 트인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유럽 각국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아시아로의 진출이 활발하여 중국식 가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화려한 조끼, 인도 복식의 세부장식 등의 그림과 인도, 몽고, 중국 복식에 대한 실물과 설명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동서 여행이 빈번해지면서 외국 취미를 즐기게 되고 인도·중국풍을 모방하여 아름다운 직물을 생산하였다.²⁰⁾ 특히 인도에서 전래된 목면 날염직물인 인디엔느(Indiennes)²¹⁾는 문양과 색채가 동양적인 것으로 주로 귀족들의 의상에만 사용되었고 그 사치성향으로 인해 금령(禁畵)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는 상류계급 사이에서 동방 취향이 그 절정에 달해 중국 및 국동풍의 문양, 품물들을 가구나 도자기, 직물, 의상 등에 등장시켰는데 시노와즈리(Chinoiserie, 중국취미)·튀르크리(Turquerie, 터키취미)라 불리면서

16) Lester and Kerr, Historic costume (Illinois: Chas. A. Bennett Co., 1967), p.86.

17)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신고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0), p.122.

18) 정현숙, "십자군 전쟁이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1) (1986): p.18.

19) 정홍숙, 전계서, p.186.

20) 김윤희, 전계서, p.76.

21)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전계서, p.213.

유행하였다. 특히 로코코시대에 남자 머리에서 보 여지는 땀은 머리 형태의 피그테일(pigtail)은 통구 스족이나 만주인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전 유럽으로 전파되어 일반인에게까지 보급되었다.²²⁾

19세기 영국에서는 동양 복식이 일상적으로 입혀 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선호되어 터어키편의 복식이 많이 입혀졌다. 이는 당시 남성들이 밝은 색 상과 자수된 조끼를 많이 입었었는데 터어키 복식 이 그와 형태가 비슷하여 쉽게 받아들여졌고 그런 의복의 구성이나 형태가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었다.²³⁾ 또 미국의 Amelia Bloomer는 새로운 여자 의 상인 동양풍의 바지를 1851년에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것은 아라비아인들이 착용한 풍성한 긴 바지의 단을 오므린 것으로 블루우머(bloomer)라 불렸으며 짧은 스커트 밑에서 보이게 입었다. 특히 그는 여권존중의 입장에서 이 복장을 입기를 주장 하였으나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1840년경에는 뷔르누(burnous)라는 아라비아식 의 의투가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후드가 달린 망토 형으로 태슬이 달리고 가장자리를 자수로 장식한 것으로 루이 필립 시대에 프랑스와 알제리아의 전 쟁 중에 그 지방에서 도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뷔르누는 1850~1860년대에까지 유행하였고 그 후 에도 외출복의 대용으로서 계속 사용되었다.

2. 20세기 이후

1910년을 전후하여 이전의 형식적인 전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동방적 이국주의와 화려한 장식이 모든 예술양식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패션계에 있어서도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세 헤라자테(Scheherazade)」 파리 공연²⁴⁾에서 Leon Bakst가 디자인한 동양풍의 발레 의상<그림 2>이 새

로운 충격과 함께 동방풍의 유행을 가져왔다. Bakst 는 그의 의상에 스카프나 타슬, 보석 등의 장신구를 부착하여 생동감을 주었으며 색채에 있어서도 초록, 빨강, 파랑, 장미빛의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여 이국 적인 사치스러움과 풍요로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2> Leon Bakst의 동양풍 의상, 1911

Bakst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Paul Poiret(187 8~1944)는 러시아 발레단의 강렬한 색조와 고대 중국의 밝은 색채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연유된 뛰어난 색채 감각을 가지고 20세기 초기 패션에 이국 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동양풍의 모드를 선보임으로 써 전유럽에 이국취미와 호화취미를 유행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²⁵⁾

Poiret의 아라비안과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터번 과 하렘 팬츠(Harem Pants)는 부드러운 드레이퍼 리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하나의 스타일 로 정착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기모노는 그의 이국 취향 형성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06년 일 본의 기모노 슬리브를 수정하여 만든 이브닝 코트 는 후에 '공자'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으

22) 정홍숙, 전계서, p.266.

23) 김윤희, 전계서, p.77.

24)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Y.: Harry N. Abrams Inc.,1987), p.392.

25) 채금석, 전계서, p.273.

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호블 스커트(Hobble Skirt), 하이 웨이스트에 넓은 새쉬 벨트(sash belt)를 맨 미나렛 튜닉 스타일(Minaret Tunic Style) 또한 오리엔탈리즘적 성격 중 일본취향이라 볼 수 있다.

이후 1922년 투탄카멘왕의 고분발견으로 이집트 풍의 모티브가 복식의 문양과 장식품에 널리 나타나게 되었으며 1931년에는 파리의 '식민지 박람회'를 계기로 태평양이나 극동, 북아프리카 등의 이국적 민속풍 모드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소개되었다.²⁶⁾

즉, 복식에 있어서 동양적 요소의 영향은 기능적이고 단순한 직선미와 강렬한 색채대비를 추구하는 아르데코(Art Deco)적 특성에 부합하여 이 시기 유행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인디언 술을 이용했으며, 물자절약을 위한 디자인으로 장삼이나 좁은 바지, 중국 랜턴형 소매와 같은 매우 직선적인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은 복식을 볼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여성복이 기능적이고 실용적으로 변천하였다. 1947년 Dior의 뉴 룩(New Look)에 맞추어 자연 밀짚으로 만든 쿨리 햇(Coolie Hat)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노동자들이 쓰던 모자의 형태로 동양풍의 원추형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²⁷⁾

1960년대의 동양풍의 영향은 미국에서 시작된 히피 저항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²⁸⁾ 히피족들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반항으로 제3세계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동양의 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끝이 풀어진 블루진, 롱 케이프, 아메리칸 인디언의 튜닉, 인도의 자수장식 등으로 수놓은 셔

츠, 아프칸 스타일의 케이프 등 민족적 경향의 영향을 받은 화려하고도 경박한 집시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고, 자연과 자유를 상징하는 긴 머리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Yves Saint Laurent은 히피 운동에 자극을 받아 이국풍과 동양풍의 유연하고 편안한 의복을 내놓았으며 1967년 아프리카에서 이미지를 따온 드레스를 발표함으로써 파리 오프 꾸뛰르에 이국취향의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히피풍의 영향과 함께 월남전의 종결, Kenzo와 Miyake 등 일본 디자이너들의 파리 진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교에 따른 중국의 영향에 의해 동양풍이 유행하였다.²⁹⁾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서양이 OPEC 국가의 정치, 경제적 움직임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중동의 전통 복식이 재해석되어 하렘 바지, 튜닉, 터번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1975년 봄 파리 컬렉션에서는 Kenzo가 발표한 중국풍 마오-아-라-모드(Mao-a-la-Mode)가 이국적인 모드로 패션계의 관심을 끌었다.³⁰⁾

1980년대 과학문명의 급진적인 발달은 지구환경의 훼손과 더불어 현대인의 생활을 인위적이고 형식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동양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제력 강화와 함께 Takeda Kenzo, Issey Miyake, Rei Kawakubo, Kansai Yamamoto, Junko Kosino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인해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이 유행하였고 이는 비구조적 형태의 빅 룩(Big Look)과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으로 서구 패션에 정착되었다. 그 외 중국의 문호 개방, 88올림픽의 한국 개최 등도 유럽에 동양적 향수를 부각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1988년과 89년, 프랑스 패션 정보지에 소개

26) 상계서, p.276.

27) 김윤희, 전개서, pp.79-80.

28) 간문자, "1960년대 저항패션이 민속풍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30 (1996): p.158.

29) 상계서, p.158.

30) 권기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에 대한 연구: 동남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복식』 26 (1995): p.71.

된 '동양의 테마' 경향을 보면 자카드 효과가 나는 사치스러운 원단의 사용, 동양적 무늬, 정열적 색상,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모자와 두건, 휘감아 둘러싼 허리 랩, 루즈 룩 등이었다.³¹⁾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 아시아 지역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기말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동양의 종교적 세계와 연관되어 보다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의 중국본토 반환이라는 큰 변화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중국전통문양, 동양자수기법, 중국 전통복 요소를 활용한 의상 등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Ⅲ. '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으로 남겨둔 현 시점에서 세기말적인 불안감과 함께 기계화·정보화가 이룩한 표준화된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 현대인들은 정신적 안식처로서 정적이면서도 자연에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방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고유한 사상·철학·종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오리엔트 지역의 민속복식은 서양과는 다른 미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외적 조형성에 있어서도 독특한 형태미를 보이므로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복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며 가시적으로 지각되는 구체적인 조형 요소인 형태, 직물, 문양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 일본과 '90년대 새롭게 부각된 한국, 동남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민속복식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9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해를 더하려 한다.

1. 형태

1) 중국풍

중국은 풍토적으로 아한대에서 아열대에 걸쳐 있을 만큼 영토가 넓고, 한족과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³²⁾ 이러한 특성은 의복과 장신구에도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게 한다.

대표적인 전통복식은 청조(淸朝)를 일으킨 만주족의 고유의상에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치파오(旗袍)³³⁾로 현대 패션에서 그 형태적 특징이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다. 치파오는 다아트를 넣어 체형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형 드레스로 보행시의 불편을 막기 위해 스커트 양 옆솔기를 터 주었고 목선에서 어깨, 겨드랑이로 트임이 있어 매듭단추로 장식을 겸하여 여며 주었으며 만다린 칼라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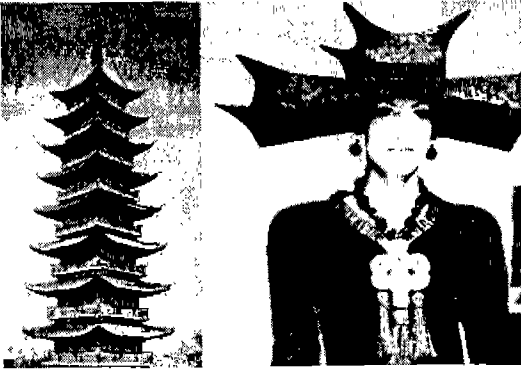
이러한 형태의 치파오는 많은 스타일의 변화를 거친 후에 확립된 형으로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생활방식의 상징으로서 유행에 맞으면서도 중국인의 특성을 잘 묘사하는 의상이라 할 수 있겠다.

'90년대에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구매욕구가 늘어나고 이를 인지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중국 패션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한 시기이다. 특히 현대 패션에 있어 중국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요소로 치파오의 특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타이트 실루엣과 매듭단추, 사선 여밈, 만다린 칼라, 긴 슬릿과 같은 세부장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함께 지켜져 온 건축조형물을 상징화한 디자인 형태(그림 3)도 보여진다. 그러나 그 형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듭단추는 일반단추로, 비대칭사선 여밈은 좌우대칭 여밈으로 변형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생활패턴에 따라 실용화, 기능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1) 채금석, 전계서, p.283.

32) 이상례, 전계서, p.65.

33) 황춘섭, 『민속의상』 (서울: 수학사, 1994), p.110.



<그림 3> Valentino, WWD, 1993. 10

또한 1949년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잡은 이래 중국 본토에서 노동복으로 착용하여 왔던 실용적이고 간소화된 모택동 펜츠와 재킷, 노동자들이 쓰던 콜리햇과 같은 침울하고 소박한 이미지의 의상도 만다린 칼라의 숏 재킷과 숏 팬츠로 디자인함으로써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던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문양의 자수를 놓음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표현되고 있다<그림 4>.



<그림 4> Dona Karan WWD, 1993.11

2) 인도풍

'90년대에는 인위적이고 도식적인 현대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망이 정신세계에 대한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고 영원한 정신적인 귀의처로 세계각국의 구도자들이 모여드는 인도 문화에 대한 동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해져 '90년대 패션에 있어서도 인도풍은 커다란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도는 인종과 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구성이 지극히 복잡하고 의복 역시 전체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복의 형태를 서구복식의 형태로 바꾸어 전통복식은 의식·의례용으로 입혀지는데 반해 인도는 현재까지도 그들의 전통복식을 일상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민속의상인 도티(dhoti)와 사리(sari)는 재단이나 재봉을 하지 않은 긴 천을 몸에 그대로 둘러입는 전형적인 권의형(drapery형) 의상으로 무굴제국시대 이슬람교도의 지배로 인해 받아들여진 페르시아풍의 화려한 코트와 좁은 바지, 티어번 등과 함께 현재 인도 의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³⁴⁾ 그 중에서도 사리는 가장 널리 알려진 여성복으로 기본의상인 초리(choli)와 스커트(petticoat)를 입은 후에 착장하게 되는데 착장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내어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 준다.

현대 패션에서는 전통 사리나 도티의 복잡한 착장방식을 간소화시켜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변형시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속적인 것을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방식에 맞도록 재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는 스커트 대신 여유가 있는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사리의 두르는 방식을 단순화시킨 천을 둘러줌으로써 활동성을 높여 준 의상으로 조리형 샌들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풍과의 혼용으로 동양적 취향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신축성있는 소재

34) 황춘섭, 상계서, p.82.



<그림 5> Kenzo, Mode et Mode
No. 301, 1998



<그림 6> Jean Paul Gautier, WWD,
1994. 3

를 사용, 몸에 밀착되면서 캐주얼 느낌이 나도록 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배꼽티'라고 불리며 유행되고 있는 스타일도 초리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인도 의상에서 바지 형태인 샤르와르(shalwar)와 주디다르(chudidar)는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비구조적인 스타일로 인해 현대 의상에서 자연주의적 경향을 표현하는데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네루 수상이 착용했던 것에서 연유한 네루 재킷(Nehru Jacket)은 현대 패션에서는 비교적 원형에 가까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 남성들의 머리장식이었던 터어번 또한 현대 패션에서는 여성의 머리장식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각적으로 장식 효과가 커서 등양적인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94년 춘하 콜렉션에서 Jean Paul Gautier는 인도풍의 의상과 장신구를 전위적인 분위기로 재현하고 있는데 그는 여러 문화의 절충적 성격과 다양한 소재의 혼용 사용 등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Gautier는 코걸이와 이마의 체인장식 등의 인도

풍 장신구를 응용하고 있으며 데님 재킷을 착용하여 초리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거친 느낌의 데님 상의와 대조되는 부드러운 실크 사롱 스커트를 매치킴으로써 표현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풍의 형태적 특징은 사리, 도티 등 전통복식의 복잡한 착장방법을 단순화시켜 서구복식의 형태와 인도 전통복식 형태와의 절충, 인도와 다른 동양권 전통복식 간의 절충 양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드레이퍼리형 의복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성격과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성격이 함께 나타나 현대화된 새로운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3) 일본풍

일본의 의복은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한 기후에 적합한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는데 전통의복인 기모노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으며 직선적인 재봉을 하여 품에 여유가 있으며 앞이 전부 트여 있어 좌우를 포개어 여미게 되는 전개형(caftan형)이다. 여밈의 도구

로는 '오비'를 허리에 두르고 그 위에 '오비지메'라는 끈을 매어 정리하여 입는다. 겨울의 방한을 위해서는 기모노를 여러겹 겹쳐 입는 것이 필요조건이었는데 이는 80년대 많은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레이어링(layering)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독특한 착장법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일본복식과 현대 일본풍 패션 양쪽 모두 인체에 대해 서구의 복식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재봉과 실루엣이 서구문화에 있어 최고의 가치인데 비하여 겹쳐입기와 추상적인 조형은 일본풍 디자인의 특징³⁵⁾으로 이는 일본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패션에서 넓게 과장된 어깨와 풍성한 박스형의 실루엣, 레이어드로 나타났던 일본풍은 '90년대 패션에서는 자연주의 성향과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을 살리면서 일본 전통의 직선적 재단과 여밈의 형태, 오비를 응용한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밈을 대부분 랩(wrap)형으로 끈을 돌려 묶거나 장식적인 효과가 큰 브로치로 고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



<그림 7> Maxmara, Mode et Mode No. 301, 1998

기모노의 변형 이외에 건축물이나 기타 생활 양식에 나타난 일본인의 미의식을 차용하여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정신을 느끼게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그림 8>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8> Givancy, Mode et Mode No. 302, 1998

또한 기계적 주름을 잡음으로써 음영에 따른 광택감과 볼륨감의 차이, 색채의 미묘한 변화 등을 느낄 수 있는 <그림 9>는 '80년대 Issay Miyake가 의복에 도입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전통 종이접기인 '기리카미' 방법을 응용한 작품으로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함께 평면적 의복에 입체감을 주어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7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이 서구인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직선재단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겹쳐입기의 착장법 등을 서구 패션에 등장시킨 이래 '90년대에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미를 살리는 보다 심플한 실루엣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화되어 정착되면서 세계에 일본풍을 확고히 심어 놓고 있다.

35) 이상례, 전제서, p.81.



<그림 9> Koji Tatsuno, Fashion Preview, 1991-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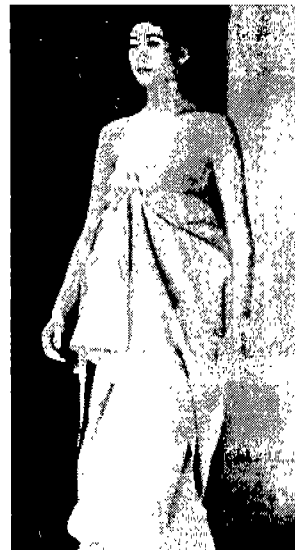
4) 한국풍

서구 패션에 있어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전통적 요소가 오리엔탈리즘으로 인식되어 빈번하게 도입되어 오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전통 요소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 도입 정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신우의 '90년도 룩 컬렉션, '9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데뷔를 시작으로 진태욱, 이영희, 홍미화 등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 무대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속에 한국적 조형미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전통복식은 조선시대 복식의 형태를 이어받은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를 들 수 있으며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는 여성복식의 상박하후(上薄下厚) 형태와 자연스런 실루엣,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곡선의 아름다움은 현대 패션에서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이다.³⁶⁾

이 외에도 저고리의 여밈 역할을 하는 옷고름과 저고리 길에 사선으로 엮혀있는 것의 비대칭, 치마의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고 착용자의 울동에 따라 유동적인 선을 형성하며 입체성을 표현하는 주름 또한 독특한 조형미로 표현되고 있다.

한복 디자이너로 시작하여 전통미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영희의 '93년 작품인 <그림 10>은 한복 치마를 현대화한 이브닝웨어로 끝자락을 땀지게 둘러 앞에서 고정시켜 줌으로써 우아한 드레이프의미를 보여준다.



<그림 10> 이영희, Fashion Today, 1994. 1

서구 디자이너들에 의해 한국풍이 도입될 경우에도 전통 치마저고리의 비례와 저고리 디테일, 풍성하고 여유있는 실루엣 등의 표현이 보여지고 있으나 한국풍의 형태에 일본풍의 디테일과 같은 동양적 요소의 절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11>은 Issay Miyake의 작품으로 삼베와 옷고름을 이용하여 동양풍을 표현하고 있는데 기괴하게 큰 칼라와 옷고름의 형태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전위적인 새로움을 보여준다.

36) 여상미, "현대 복식에 활용된 한국복식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논문집』 (경성대) 18(2) (1997): p.72.



<그림 11> Issay Miyake, WWD, 1993. 4

5) 동남 아시아풍

동남 아시아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문화권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이들 두 지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그들 나름의 전통적인 것과 함께 중국과 인도의 의복을 조화시킨 형태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³⁷⁾

버어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가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인식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인', '인도차이나'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세계에 상영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지역의 풍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영감을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93~'94년에는 베트남의 전통복식인 아오자이(ao dai), 쿠완(quan)을 응용한 의상이 많이 선보였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는 아오자이 스타일의 허리

에서 길게 슬릿이 들어간 실크 쉬폰 상의와 쿠완 스타일의 새틴 팬츠로 동양풍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 아오자이와는 달리 다야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유롭고 풍성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상의는 일상생활의 구속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Dennis, WWD, 1993. 8

동남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속복인 사롱(sarong) 또한 동양풍의 민속복이 서양복식에 도입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아이템으로 현대 패션에서는 허리에 둘러 묶는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레어드 룩을 제안하고 있다.

Dries Van Noten은 매 시즌 발표 작품에서 동양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동남 아시아풍의 사롱형 하의를 즐겨 사용하여 독특한 현대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3>은 그의 '97년 발표 작품으로 마치 꽃문양의 문신을 한 것처럼 몸에 밀착되는 시스루 소재 상의와 함께 바지를 착용한 다음 사롱형 하의를 레어드함으로써 보다 감성적으로 동양풍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제작

37) 권기영, 전계서, p.73.

기술의 발달을 통한 새로운 에스닉의 표현방법이며 또한 현대 패션의 로맨틱시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Dries Van Noten, Collections, 1997

이 외에 태국 전통무용에서 착용하는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의 독특한 형태미를 모티브로 한 예술적인 의상도 발표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남 아시아풍은 문양이나 직물은 다른 문화권 이미지나 현대적인 신소재를 사용하면서 그 형태를 주로 차용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 북부 아프리카풍

지중해 연안을 따라 유럽대륙과 맞닿아 있어 일찍부터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모로코, 알제리아,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를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슬람과 유럽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며 복식 또한 머리로부터 전신을 감싸는 이슬람 문화권 복식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의

강한 태양이나 모래바람으로부터 모발과 피부를 보호해 주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북부 아프리카풍은 과거 Yves Saint Laurant이 모로코 패션을 유행시킨 이후로 '90년대에 새로운 감각으로 제안되고 있다.

흰 색의 커다란 면직물로 머리부터 전신을 감싸 가리고 눈이 보이는 부분만을 조금 벌려놓았을 뿐인 튀니지의 차도르(chador)를 응용한 Comme Des Garsons의 의상은 소매와 후드가 이어지는 기묘한 형태에 요란한 큰 가발을 씌우으로써 전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Comme des Garsons, ELLE, 1996. 4

또한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 유품의 이미지를 응용한 '98년 Louis Feraud의 작품은 고대 이집트의 왕관을 연상케 하는 머리 장식을 하고 광택이 나는 소재를 이용하여 보다 사이키델릭한 미래형 크레오파트라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15>.

이처럼 북부 아프리카풍의 형태적 특징은 실루엣이나 디테일의 접목보다는 전통복식 그 자체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여 나타나며 고대 이집트 의복과

38) 『이집트·아프리카』, 원더풀 월드 제11권 (서울: 동아출판사, 1991), pp.50-51.



<그림 15> Louis Feraud, Mode et Mode No. 302, 1998

장신구의 독특함은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소재로 빈번히 표현되고 있다.

2. 직물과 문양

1) 중국풍

중국은 '실크의 나라'라고 할 만큼 다양한 실크가 직조, 사용되어 그 복식의 화려함을 더 하였으며 근방의 한국, 일본은 물론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방에 까지 전해져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환상을 고취시켰다.

'96년 춘하 모드에서는 소재에 있어 '상통 실크 (shantung silk)'의 사용이 붐을 이루었는데³⁹⁾ 이것은 중국 산둥 지방에서 생산되는 평직의 견직물로 수직실크라고도 불린다. 이 소재의 특징은 어딘가에 굽힌 듯한 자국이 불규칙하게 나 있어 조금 거친 듯한 느낌을 풍기지만 이러한 점이 대두되고 있는

자연주의와 맞물려 소박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소재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색상에 있어서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행운, 위엄, 결혼의 이미지⁴⁰⁾로 받아들이고 복식에 있어서도 붉은색의 선호가 두드러져 현대 패션에서도 빨강은 중국풍의 디자인에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색채이다.

문양에 있어서는 당대(唐代)에 와서 용문이 의복에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중국 황실복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궁중 여자복에서는 평문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특히 용문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양으로 현대 디자이너에 의해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 외에 십이장문(十二章紋)을 중심으로 동물의 변화된 문양, 식물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등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다. <그림 16>은 중국 디자이너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 중인 Zang Toi의 '93년 작품으로 크고 탐스러운 목단 문양과 함께 봉황문과 용문을 화려하게 자수하여 슬리드 직물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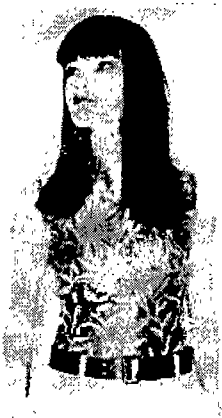
<그림 16> Zang Toi, Fashion Today, 1994. 1

'97년 봄에는 로맨티시즘의 영향으로 꽃무늬가

39) "Shiny Effect," 『ELLE』 1996. 4: p.32.

40) 허버트 리드, 『미술의 의미』, 박용숙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2), p.61.

많이 등장하였는데⁴¹⁾ 식물무늬로 불려야 할 만큼 줄기·잎·뿌리가 달려있는 꽃송이, 대나무잎, 담쟁이 덩굴을 연상시키는 얽기설기 얽힌 식물 등이 우아하고 사실적인 문양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홍콩의 중국반환으로 중국에 관심이 쏠려 있던 것과 맞물려 중국 회화의 수묵적 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한다던가 '죽의 장막'이라 불리는 중국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문양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7>에서는 단순화시킨 대나무잎이 연속적으로 그려진 빨간색의 실크 만다린칼라 재킷으로 베이지색 바지와 코디네이션함으로써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중국 감성의 의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Prada, WWD, 1997. 3

2) 인도풍

인도는 면직물과 견직물의 세계적인 산지이다. 특히 사라사는 주로 인물, 조수, 화훼 또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면직물에 그린 것으로 영어로는 친즈

(Chintz)라고 하고 17~18세기에 동인도회사를 통해 서방으로 전파된 이후⁴²⁾ 프린트 직물의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사라사 직물에서 볼 수 있었던 꽃무늬를 검은 벨벳에 화려하게 직조한 의상인 <그림 18>은 동일한 직물로 만든 롱부츠를 착용하여 마치 슈디다르를 입은 듯한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으며 네루 재킷의 칼라를 응용한 형태와 터어번 머리 장식으로 인도풍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8> Jean Louis Scherrer, Collezioni No. 42 1994

북인도 캐시미르 지방에서 생산되는 고급 모직물인 캐시미어⁴³⁾에는 망고, 사이프러스, 솔방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모티브로 한 페이즐리 문양이 흔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이국적 취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패턴으로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또한 인도에서는 의복을 장식하기 위해 각 지방마다 고유의 문양과 기법을 가진 자수가 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것으로 미러 워크(mirror

41) "우아한 꽃무늬...동양 귀부인처럼," 『한국경제신문』 1997. 3. 15.

42) Jennifer Harris, 5,000 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3), p.102.

43) 전영주. 전개서, pp.19~20.

work)가 있다. 이것은 작은 유리 조각을 군데군데 장식함으로써 햇빛이 반사될 때마다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되는 것으로 <그림 19>에서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미려 워크 기법은 최근에는 미니멀리즘한 의상에 수공예적인 고급스러움과 독특함을 충족시켜 주는 도구로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9> Armani, Mode et Mode
No. 302, 1998

3) 일본풍

일본의 의복은 일정한 형태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직물의 아름다운 장식에 주목하도록 하여 색채와 문양의 발달을 가져왔다.

헤이안(平安)시대 여자들의 정장이었던 십이단(十二單)은 여러겹으로 옷을 겹쳐 입음으로써 깃, 수구, 옷자락 등의 색채 배합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거기에 자수를 걸드려서 색채효과를 높였다⁴⁴⁾고 한

다. 이러한 색채 배합의 세심한 배려는 일본에서 영감을 얻은 Givancy의 작품<그림 20>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흰색과 주황색의 산뜻한 색채 대비와 더불어 주황에 금박으로 자수를 놓은 소매단이 그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전통 아사노하(麻の葉) 문양을 응용, 추구공을 연상시키는 육각형을 퀘팅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의 일본 개최를 반영한 시사적인 의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0> Givancy, Mode et Mode
No. 301, 1998

문양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화초문, 운문, 난초, 과일, 매화, 대나무, 백합, 당초문양과 화조문양 등⁴⁵⁾이 사실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기도 하였으나 자연물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연속무늬 형태가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막부시대 고소데(小袖)의 무늬표현은 염색, 직조, 자수 등의 방법으로 사생풍, 도안풍 등 다양한 무늬를 각종 문화, 예술에 표현했는데

44) 임복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48.

45) 상계서, p.52.

이는 복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직물기술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⁴⁶⁾

이러한 문양의 사용은 현대 패션에서도 적용됨을 볼 수 있는데 꽃, 연꽃 속의 물고기, 나비 등을 지수, 아플리케, 프린트를 이용하여 직물에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꽃문양 중에서는 벚꽃을 단순화시킨 문양의 사용이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취향을 잘 느끼게 해주는 문양이다(그림 21). 그 외 히라가나 문자를 모티브로 한 프린트의 사용도 눈에 띈다.



<그림 21> Junko Shimada, Mode et Mode No. 301, 1998

4) 한국풍

한민족은 복식재료로 거칠고 투박한 삼베와 같은 마직물과 소박한 무명, 노방 등을 사용하여 한국 복식이 추구하는 선의미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울이 굵고 거친 느낌의 삼베와 섬세하고 단아한 아름다움과 얹게 비치는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모시는 현대 패션에 있어 한국풍을 표현할 때 애용되는 소재이다.

한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색채 표현은 백의 민족이라 불리는 백색에 호연상과 함께 강조색으로 나타나는 원색의 조화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 민족이 애호했던 백색은 대개의 경우 표백된 순백색이 아니라 소재색 그대로인 소색(素色)으로 옅은 색상을 띤 깊은 맛을 주는 백색으로 소박하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우리 민족의 겸허한 마음이 함축되어 있다.⁴⁷⁾ 그리고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의 오방색은 주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불교의 사찰과 궁궐에서 사용하던 단청과 혼례나 어린이 돌옷에 사용되는 색동은 대표적인 예이다.⁴⁸⁾

전통 문양으로는 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을 중심으로 사군자, 목단, 연꽃, 수복문자의 길상문(吉祥紋)과 풍경, 나비, 박쥐, 용, 호랑이, 봉황 등의 유교적인 염원성이 강하게 담긴 문양이 많았다.⁴⁹⁾

'90년대 초 이신우, 진태옥, 이영희, 홍미화 등은 세계 무대 진출에 있어 무명, 모시, 삼베, 실크 등의 한국적 소재로 신비한 동양풍을 보여주었다. 특히 홍미화는 거즈, 광목, 노방 등을 순수한 소재색 그대로 이용하여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감성을 지닌 일련의 작품으로 그녀 특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 22>는 '한 여름밤의 축제'를 테마로 한 작품으로 우아한 광택을 지닌 얇은 노방을 사용하여 그 형태를 단순화시킴으로써 광택 사이로 엿보이는 인체 비침을 두드러지게 하여 동양적 에로티시즘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색동과 유사하게 오방색을 사용하였던 조각보는 폐품활용의 지혜를 발휘한 우리 조상들의 절약정신이 담긴 소품으로 '90년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리사이클링(recycling)이 각광받으면서 한국풍의 모티브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각보의 면분할 구성은 큐비즘(Cubism)으로부터 몬드리안

46)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p.23.

47) 여상미, 전게서, pp.69-70.

48) 박영순, 이현주,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1998), pp.123-124.

49) 임복임, 전게서, p.37.

(Mondrian)으로 이어지는 패턴과 색감의 유사성으로
서 기하학적인 옵 아트(Opt art)적 요소를 많이 띄며
50)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방법이다.



<그림 22> 홍미화, WWD 1993. 9

스포티브한 서츠에 우리 고유의 미인도 속의 여인
을 프린트함으로써 서구적인 매력과 함께 한국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림 23> 진태옥, Collezioni No. 44, 1995

'9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전통 문양
이나 벽화, 민화, 풍속화를 응용한 프린트의 사용이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신우는 '94년 추동 파리 컬렉션에서 옛 고구려
벽화의 '해의 신'과 '달의 신'을 응용한 프린트 그립
을 컬렉션의 테마로 하여 강한 힘과 에너지를 가진
해와 달의 기상을 통해 수호신의 이미지를 표현하
여 주목을 받았다.

진태옥은 민화의 화조도(花鳥圖) 문양을 자수한
의상을 '95년 선보이고 있다<그림 23>. 문양의 꽃과
나비는 음양화합을 의미하고 특히 목단은 탐스런
자태에서 연유하여 부귀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여성의복에 즐겨 사용되었다. 그는 소재
를 고급스러운 실크를 사용한 반면 단의 마무리를
하지 않아 울이 풀어진 채로 놓아둔 상의와 실용적
인 데님 스커트의 코디네이션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과격미를 보여준다. '96년 파리 컬렉션에서는

<그림 24>는 십장생도를 프린트한 실크 누빔 코트
로 서구 복식의 조형성에 한국적인 색감과 문양으로



<그림 24> 설윤형, Fashion Today, 1996. 6
동양적인 모던함을 표현한 설윤형의 작품이다.

50) 임영자, 전게서, p.267.

이처럼 '90년대 초 전통복식의 형태를 주로 응용하였던 것과 달리 '90년대 중반이후로 전통문양과 벽화, 민화, 풍속화 등을 모티브로 한 문양을 프린트하여 서구복식의 조형성에 접목시킨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통미를 바탕으로 현 시대 감각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의 시도로 보여지며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5) 동남 아시아풍

동남 아시아 지역은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로 인해 열전도율이 높고 땀을 잘 흡수하는 목면을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바틱(Batik)은 납방염(Wax print dyeing)으로 독특한 문양을 염색한 직물을 말하며 매일 수욕(水浴)을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질 좋은 면직물과 견뢰도가 좋은 염색에 대한 요구로 발전한 것이다. 바틱의 문양은 화초, 새, 곤충, 칼, 파도, 비 등 자연물을 상징화한 무늬를 모티브로 섬세하게 반복되는데 이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공포와 동경이 하나의 미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⁵¹⁾

현대 패션에서는 패턴의 형태나 색채가 변형, 발전되어 사롱형 하의와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6) 북부 아프리카풍

과학 문명의 급진적인 발달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게 된 현대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강렬한 원시적 야수성과 토속성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면서 이 지역의 독특한 직물, 문양, 장식 등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문화는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원시 신앙 예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직물은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상징

적 의미가 반영된 매개물로써 그들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비뿔어진 시각(Evil eye)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플건을 탐하여 노려보면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고 그 인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전갈의 독이빨, 손관절의 뼈, 뱀 등의 자극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직물에 다이아몬드,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상징화되었고 색상도 화려하고 강렬하며 주로 적갈색, 청색, 적색, 검정색 등의 방염에 의해 문양이 표현된다.⁵²⁾ 이러한 아프리카풍의 기하학적 연속 무늬 형태는 '90년대 패션에 있어서도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25>는 점정색 방염에 의한 아프리카풍 문양 표현, 토속적인 장신구의 사용과 더불어 메탈 컬러의 누빔 재킷을 입음으로써 원시성과 현대성의 접목, 미래지향의 테크놀로지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5> Ozbek, Fashion Preview, 1991-1992
그 이외에 서아프리카의 '아던크라'라고 불리는

51) 『민속의상』, (서울: 라사라, 1992), p.121.

52) 김수영, "아프리카 직물의 기법과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14.

수날염(手捺染) 직물에 사용되었던 독특한 문양을 이용하기도 하고, 중부 아프리카 마사이부족의 독특한 색채와 줄무늬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

현대 패션에서의 북부 아프리카풍은 그 형태의 차용보다는 원시적인 색상과 독특한 문양의 접목으로 이국적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주술적 의미를 내포한 다이아몬드,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은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직물에 표현되고 메탈 컬러의 신소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원시성과 현대성의 접목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발전되어 가는 과학기술 테크노(Techno)가 에스닉(Ethnic)의 표현양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에스노(Ethno)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패션에 있어서의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탈 지역의 전통복식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형태미와 장식적인 요소들을 현대 복식에 도입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IV. 결 론

20세기 이전 서양중심사상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이 퀴미와 기호 수준에 머물러 주로 동양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였던데 반하여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서양 복식에 동양 복식의 특징들을 혼합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동양사상에 대한 본질적 재인식이 시도되는 등 사상적 회귀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동양적 요소가 서양 복식에 창조적으로 수용되어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패션에서 부각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 서구패션에 접근된 방식과 표현방법을 규명하고자 형태, 직물, 문양의 측면에서 중국풍, 인도풍, 일본풍, 한국풍, 동남 아시아풍, 북부 아프리카풍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형태적인 면에서는 자연주의 성향과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착장방식을 간소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을 살리면서 전통복식의 특징적 요소를 서구복식에 접목시킨 활동하기 편리한 형태로 변형시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기, 두르기, 걸치기 등의 레이어드에 의한 착장법으로 표현되며 각 민족 예술품의 독특한 조형미에서 영감을 얻은 상징적인 형태 경향도 나타난다.

둘째, 직물면에서는 중국·일본·인도풍의 실크, 동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풍의 면직물이 다채로운 색상과 결합하여 화려한 동양적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풍의 향토색 짙은 모시, 삼베 등의 마직물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소박하고도 자연적인 동양의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소재나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실크와 실용적인 데님을 코디 한다던가 테크니컬한 신소재 직물과 전통적인 직물을 함께 사용하는 등의 고정관념탈피 경향이 두드러진다.

셋째, 문양면에서는 서구 복식의 형태 위에 전통적인 문양이나 염색기법, 자수나 장식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한국·일본풍의 꽃, 대나무, 나비 등 사생품의 문양은 자수나 프린트를 이용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풍의 기하학적 연속문양은 바틱과 같은 전통 염색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풍의 미러워크와 같은 장식기법은 최근의 미니멀리즘한 외상에 수공예적인 고급스러움과 여성적인 로맨틱함을 충족시켜 주는 도구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간소화시키고 동서양의 이질적인 문화를 조화시키거나 각국의 전통복식 요소들을 혼합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깨 착용자의 개성이 중시되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테크니컬한 금속 질감의 첨단소재와 옵아트 기교를 넣은 연속적인 기하학적 프

<표 1> '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특징

조형요소 분류	형태	직물·문양
중국풍	* 전통복식의 세부장식을 주로 응용 -사선여밈은 주로 알트임 여밈으로 변형 (실용성) -매듭단추 대신 일반단추의 이용 빈번 * Coolie Hat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추구 * 건축물과 같은 예술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음	* 상투 실크, 광택있는 세틴, 면, 니트 사용 -고급스러운과 소박함이 공존 * 전통적으로 선호하여 온 붉은색 사용 빈번 * 용문양, 대나무문양으로 중국 상징 * 독단, 봉황문양을 자주하여 화려함 강조
인도풍	* 전통복식의 복잡한 착장법을 단순화 * 서구복식의 형태와 전통복식의 형태 절충 * 초리형 상의 -신축성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배꼽티'라 불리며 젊은이의 복식으로 정착 * 전통 장신구를 응용한 전위적인 장식 경향 * 큰 터어번은 고급스러운 의상과 주로 착용	* 쉬폰, 리넨, 실크, 벨벳의 고급스러운 소재와 라 이크라, 데님 등의 신소재를 혼용 사용 경향 * 전통적인 화려한 색상군 이외 차분한 톤의 색상 군 부각 * 페이즐리 문양은 현대 직물문양의 중요 모티브 * 미러워크와 같은 전통 자수기법을 도입하여 수 공예적인 고급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띠 ⇒ 로맨틱 에스닉(Romantic Ethnic)
일본풍	*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을 살리면서 전통 여밈의 형태와 여밈도구를 응용한 심플한 실루엣 * 오비형의 벨트, 끈, 큰 브로치로 여밈 고정 * 전통 종이접기 '기리카미'기법의 의복 도입 * 미의식이 나타난 조형물의 특징 응용	* 전통복식에서의 색채 배합의 배려 및 사생풍, 기하학적 문양 적용 * 벗꽃문양으로 일본풍 상징 * 일본 문자(히라가나)의 문양화
한국풍	* 전통 착장법, 치마저고리의 비례, 저고리의 디테 일, 풍성하고 여유있는 실루엣을 응용	* 무명, 거즈, 광목, 모시, 삼베, 실크 이외 라이크 라, 데님 등의 현대적 신소재 사용 * 색동과 조각보의 색상과 면분할 구성 응용 * 전통문양, 벽화, 민화, 풍속화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문양 개발 * 용도 변경의 아이디어
동남 아시아풍	* 전통 아오자이의 타이트한 실루엣과 달리 여유롭고 풍성한 실루엣 -자연주의 영향 * 사롱형 하의는 허리에 둘러 묶는 형태가 많이 보이며 레이어드 룩을 제안 * 태국 전통의상 사바이의 비대칭 불균형 형태 도입 ⇒ 오블리크 네크라인 * 태국 전통 무용의상의 독특한 형태미 응용	* 전통 바틱(Batik)염색 면직물 이외에 신소재나 다른 문화권의 직물 문양 사용
북부 아프리카풍	* 이슬람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전통 복식의 형태를 응용 * 고대 이집트 문화의 독특한 장신구와 이미지 응용	* 기하학적이고 원색적인 전통 문양, 토속적인 장신구와 더불어 메탈 컬러의 신소재를 사용하여 원시성과 현대성의 접목 ⇒ 에스노(Ethno)

린트 등을 이용한 에스노(Ethno)와 쉬폰·오간자와 같은 시스루 소재, 여성적인 꽃자수, 유리조각이나 구슬장식 등을 이용한 로맨틱 에스닉(Romantic Ethnic)은 특징적인 경향으로 이전과는 또 다른 변모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참고문헌

1. 간문자. "1960년대 저항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30 (1996).
2. 권기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에 대한 연구." 『복식』 26 (1995).
3. 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서울: 열화당, 1997.
4. 권현주. "동방문화에 영향을 받은 비잔틴 복식 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성신여대) 4 (1990).
5. 김수영. "아프리카 직물의 기법과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6. 김윤희. "20세기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II)." 『생활과학연구』 (서울대) 17 (1992).
7. 리드, 허버트. 『미술의 의미』, 박용숙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2
8. 『민속의상』. 서울: 라사라, 1992.
9. 박영순, 이현주.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1998.
10. 사이드, 에드워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1991.
11. 여상미. "현대 복식에 활용된 한국복식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논문집』 (경성대) 18(2) (1997).
12. "오리엔탈리즘." 『동아세계원색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편. 서울: 동아출판사, 1983.
13. "우아한 꽃부리...동양귀부인처럼." 『한국경제신문』 1997. 3. 15.
14. 윤명자. "현대패션의 오리엔탈리즘: '80년대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15. 은영자. "십자군 원정시 서구의 복식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6. 이상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한국, 몽골,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7.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 고대 실크로드의 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18.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19.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신고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0.
20. 『이집트·아프리카』. 원더풀 월드 제11권. 서울: 동아출판사, 1991.
21. 임복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2. 임영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1996).
23. 전영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민속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4. 정현숙. "십자군 전쟁이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11세기~15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1) (1986).
25.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26. 채금석. 『현대 복식미학: 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 가치를 중심으로』. 서울: 경춘사, 1995.
27. 혼, 마릴린, 루이스 구렐. 『의복: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1.
28. 황춘섭. 『민속의상』. 서울: 수학사, 1994.
29.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N.Y.: Harry N. Abrams, Inc., 1987.
30. Fiore, Ann Marie, and Patricia Anne Kimle. Understanding Aesthetics. N.Y.: Fairchild

Publications, 1997.

31. Herris, Jeniffer. 5,000 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3.

32. Lester and Kerr. Historic Costume. Illinois:
Chas. A. Bennett Co., 1967.

33. "Shiny Effect." 『ELLE 한국판』 1996. 4.